

전주지역 중소기업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중소기업인연합회 발대식·정관 제정

전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9개 중소기업협회 회원 50여명은 최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지역 중소기업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정보제공 및 상호 교류, 장학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과 전주시 발

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정관을 제정했다.

연합회는 박성래 (주)광레이저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유도형 신우영(주)비터(주) 대표와 김기열 (주)티엠시 대표, 감사에 소대성 (주)서비스 대표와 김준복 (주)휴테크 대표, 사무총장에 이복수 루미컴(주) 대표를 각각 선출하는 등 총 45명의 임원진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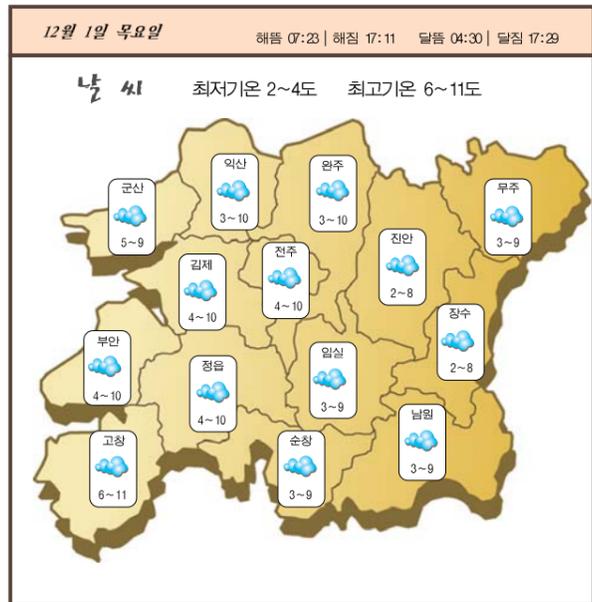
이번 발기인 대회에 이어 오는 12월

26일 300여명의 기업인과 근로자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장기차량과 유공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등 노사협합의 시간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임 박성래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발대식을 계기로 전주시 중소기업인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지위 향상 및 권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기업과 행정의 소통채널로 활용해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기업기 살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연합회에는 전주시(사)전및투자기업융합협회의와 (사)공단협회, 첨단벤처단지협의회,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자협의회, 여성기업협의회, 지식산업센터관리협의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등 9개 협의회 296개 회원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3D프린팅·사물인터넷 융합 미래인재 육성 총력

지역 초·중·고·대학생 등 32명·13팀이 참가 '사물인터넷 무선통신자동차 레이싱 경진대회' 개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융합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에 총력을 집중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0일 진흥원에서 지역 내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등 총 32명, 13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자동차(IoT Connected Car) 레이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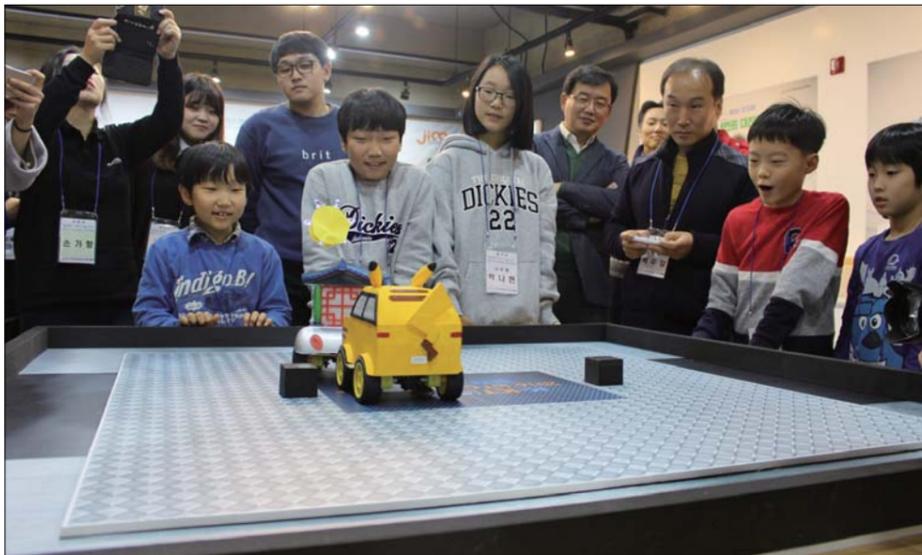
이날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의 스피드 분야와 제작한 무선통신 자동차로 트랙 안에서 경진을 펼치는 파워 부문 현장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디자인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진흥원은 각 부문 점수를 합산해 상위 6개 팀에게 상장과 트로피 등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이틀간 K-ICT 디바이스랩 전주와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에서 아두이노 센서와 블루투스 통신으로 무선 통신자동차를 제작 및 제어하고, 3D프린팅 모델링으로 외관 디자인을 직접 출력하는 등 다양한 최신 기술 트렌드를 경험하는 캠프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제작 자동차 기능 튜닝 및 외관 디자인 등 지문을 통해 제작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는 멘토링이도 가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종 IoT 센서와 3D프린팅을 동시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캠프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0일 진흥원에서 지역 내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등 총 32명, 13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사물인터넷 무선통신자동차(IoT Connected Car) 레이싱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지역 내 대학 및 미래부 지정 SW교육 선도 초·중·고교와의 아이디어 캠프, IoT 체험학습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창작문화 인식 확산과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제품화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ICT 분야를 체험하고, 창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창작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지역 내 창작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창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아두이노(Arduino)는 다양한 물리적 센서 스위치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 LED나 모터 같은 전자 장치로 출력 제어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말한다 /김영재 기자

도내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3일 서중·온고을중·이중중·용흥중 등 4개 시험장

도내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오는 3일 치러진다. 전북도교육청은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이 오는 3일 전주 서중과 전주 온고을중·전주 이중중·전주 용흥중 등 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시험에는 2782명이 응시했으며, 시험과목은 교육학과 전공A·전공B 등이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검은색 펜을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한편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234명이며, 사립은 4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고민형기자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달 30일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실행 제도를 실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전북대병원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가족친화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강명재 병원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해 직원과 가족이 행복한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1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